

## 25년 7월 목회일정

19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27일(주일)	특강 : 성경체성 관련 (강사:이광원강도사)
19일,27일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본 예배당)
26-27일	중고청 연합MT(본 예배당) [주제 :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17일(목)	통일선교위원회 부산지부모임(제2영도교회)

## 주간소식

한 영 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김성욱선교사)	
3. 성찬조별기도회 / 다음 주일 오후예배 시에 있습니다.	
4. 여름성경학교 / 19일(토) 27일(주일) 양일간 있습니다. 주제 :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애(별지참고)	
5. 목사동정 / 17일(목) 11시 통일선교위 부산지부(제2영도교회당)	
6. 성도동정 / 귀국-최예지 성도(13일 오전)	
7.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제2회 김해개혁장로교회&동래언약교회 연합수련회]

- 일시 : 2025년 8월 15-17일(2박 3일)
- 장소 : 경주 호명산기도원(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산21-1)
- 주제 : 시편 산책(강사 : 두 교회 교역자)
- 내용 : 6차례 걸친 강설로 시편 이해와 주요 본문 강해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07월	08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김명순	김낙형
안 내	김민혁	조완식

##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 개혁 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 성 연 화 교 회 ( 최 지 혁 )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7.13.(제29-28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개 회		
	* 예배에로의부름 ↑ 시124:7-8(교송) 인도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회 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 배 찬 송 ↑ 시편98편(3-4)		
	죄의고백		
	* 십 계 명 봉 독 ↓ 출20장(전계명/봉독)		
	* 죄 의 공 적 고 백 ↑ 제 2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 사 찬 송 ↑ 찬송가12장(3)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롬8:31-39,왕상2:28-35,삼하3:35-39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40편(1-4)		
	설 교 ↓ 설교자		
	악인 요압에 대한 심판(3)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 레 식 ↑ 필요시 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377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찬송27장		
	폐 회		
	* 강 복 선 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b>주일오후예배</b>	오후 3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b>개 회</b>		
* 예배에로의부름 ↑	미6:6a,8b(교송)	
인도자 :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회 중 :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축 복 의 인 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찬송23장(3-4b)	
<b>신앙고백</b>		
* 신 앙 고 백 ↓	니케아신경	
* 감 사 찬 송 ↑	찬송가548장(2)	
<b>말씀봉사</b>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롬 5:20-21	
교 리 문 답 교 독 ↓	하이델베르그114-115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39편	
설 교 ↓	설교자	
<b>엄격한 십계명 설교</b>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b>자비사역</b>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65장(1a-2b)	
<b>폐 회</b>		
* 강 복 선 언 ↓	설교자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악인 요압에 대한 심판(3))

1. 직분자들이 진실되어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말씀의 터와 질서 위에 세워져 가도록
2. 성도들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3. 교회가 항상 깨어 죄가 틈타지 않게 파수하며,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져가게

김성욱선교사(몽골)

1. 섬기고 있는 생명의길교회가 삼위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되게
2. 현지인사역자에게 맡긴 몽골장로신학교가 신실한 사역자를 양육하고 몽골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3. 개혁주의신학서적을 몽골어로 번역\*출판하는 사역(58권)을 통해 몽골에 개혁주의교회가 굳게서게
4. 격주마다 모이는 개혁주의목회자 성경연구모임(두 그룹)을 통해 개혁신앙의 실질을 이루어가도록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목사)

1. 노동과 생활풍속 문화의 차이와 언어로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2.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주들이나 내국인 동료직원들의 차별없는 대우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3. 이교도인 근로자들이 신앙의 건덕을 지닌 내국인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위하여

1. 여름성경학교(19일,27일:주제-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2. 중교청연합MT(26-27일:주제-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통해 창조질서를 바르게 알고 신도하게
3. 8월15-17일 두 교회 연합성경캠프(주제:시편산책)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되게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2)

박광영 목사(벤엘캐나다개혁교회-개혁정론)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 안에서 기독교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비성경적인 성교육보다도 무신론적, 유물론적, 현세 성공 지향적, 경쟁주의적, 능력주의적 교육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이 이번 계기로 공립학교에서의 세속주의적인 교육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심각한 경각심을 갖기를 소망해봅니다.

차별금지법과 캐나다 교회의 쇠퇴 원인

캐나다교회의 쇠퇴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가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교회 쇠퇴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캐나다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악법들의 법제화(차별금지법[1996년,2017년], 동성혼 법제화[2005년])는 캐나다교회가 현저히 약화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와 동성혼 합법화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쇠퇴하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법이 뒤따라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구교회가 쇠퇴하게 된 이유를 굳이 하나 꼽자면 세속사회가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생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20세기에 보여진 크리스텐덤(Christendom)의 제국주의적인 야욕,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던 나라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인 세계대전, 돈과 규모의 논리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상업적인 교회의 모습 등등이 오늘 한국사회 속에서 복음을 심하게 가로막고 있지 않았을까요?(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아마추어적인 소견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성경적 법과 교회의 대응

오늘날 세속국가에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법이 전혀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 국가에 있는 이 수많은 반 성경적인 법들에 교회가 세를 모아서 저항하며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에 절하라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다니엘 역시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를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그를 사자 굴에서 지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습니다.(계속)

이번 주간 암송(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욥기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설교”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엄격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엄격함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이 온 산을 감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몸소 느꼈습니다. 계명을 어겼을 때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격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는 자들이 있어왔습니다. 이건 활활 타오르는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죄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드는 어리석음과 만용을 만들어 냅니다.

언약백성이 쉽사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엄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설교가 가벼워지면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엄격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모든 계명들을 굳은 결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 엄격한 설교의 유익

엄격한 설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 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눅 5:32).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롬 5:20). 이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롬 6:1-2).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엄격한 설교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 상태인지 알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죄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엄격한 설교를 통해 죄를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십계명 해설 다음으로 ‘주기도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더욱 의존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완전함”에 이르는 길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말씀을 향한 순종은 반드시 완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셔서 당신께서 시작한 이 선한 일이 목적지까지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완성될 그 일을 소망합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7월13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96장
성경봉독	삼하3:35-39, 롬8:31-39
설 교	악인 요압에 대한 심판(3)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다윗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아웨게 말김으로서  
의인의 억울함을 갚아주었다”

다윗은 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애도하면서, 또 요압에 대하여는 약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일까요?

1. “백성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다윗”

다윗의 진심 어린 탄식과 애도는 백성들의 오해가 풀리게 하고 위로와 기쁨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아브넬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 누가 보아도 다윗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죽음을 접한 다윗의 행동을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애통할 것을 명하고,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상여를 따라갑니다. 아브넬을 묻은 후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이 장례식에서 스스로 금식(창, 겔24:17, 렘 16:5ff)을 선포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서는 온 백성의 마음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금식은 이 일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국가적인 범죄로 인한 슬픔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요압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을, 온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규례가 무가치한 것이 되어지고, 다윗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 거짓복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존립 기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머리인, 그리스도인 다윗은 자신의 금식을 통해 요압의 범죄로 인해 무너져 버린 교회의 복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슬퍼하는 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다윗의 진실된 모습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습니다.(37)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온 이스라엘의 아브넬을 위한 슬픔과 애도가 다윗의 금식을 통하여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금식은 아브넬의 죽음을 인하여 눈물 흘리던 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사61:2-3) 다윗은 교회가 거짓된 복음에 휩싸일 때 온 교회가 함께 슬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냥 이스라엘로 슬픔에 빠져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슬픔과 애통을 짊어지고, 금식을 함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불의와 의심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죄와 불의가 일어날 때에 슬퍼하며 애통해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희락으로, 애통에서 찬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로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주께 나아오는 자들을 한 영혼도 놓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교회의 기쁨과 위로는 우리 주가 되시며, 친히 우리의 당할 모든 고난을 담당하실 뿐 아니라 모든 위협과 권세들의 공격에서 지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롬8:31-39)

2. “악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다윗”

다윗이 지금 요압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요압을 처벌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38,39) 여기에 다윗의 한계와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종이 된 요압을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분명하였습니다. 요압은 불의한 자로서 의인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범한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한 다윗은 이 일의 판단을 아웨 하나님께 위탁합니다.(39b)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혈통과 육정과 과거의 모든 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아브넬을 용서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역시 혈통과 육정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조카 요압을 저주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혈통과 육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그분의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은 자신의 능력이 약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심판권을 행사하는데 이르지 못했지만, 이 불법한 자 요압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주의 나라에 의와 공도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웨께 이 불의한 죄인인 요압의 심판을 맡기며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30여년 간 계속되었습니다.(왕상 2:5ff)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한 후 이 일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제 성원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소욕과 만족을 위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벌이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행하기 위해 의인이라도 죽이기를 서슴치 않는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 두 의인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참,삼하 20:8-10) 그러므로 중보자인 그리스도 다윗은 이 두 의인의 호소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알게 하였고 자신이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행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솔로몬은 이 유언을 그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였습니다.(왕상 2:31-34)

그러나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한 것이 개인적인 미움과 감정으로 인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왕상2:32)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심판의 간구는 30년이 지난 솔로몬 왕 때에 성취되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다윗의 이 고백과 간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패역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그 의로우신 판단을 따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7월13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461장
성경봉독	.....	롬 5:20-21
설 교	엄격한 십계명 설교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은 엄격한 설교를 통해 순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동안 우리의 최악 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위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면 어느 누구도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명들을 설교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일까요?

1. 엄격한 십계명 설교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들과 율법들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계명에 대해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겨우 시작’이라서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시작한 일은 끝이 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선한 일이 완성되게 하십니다.

혹여나 완전히 지키지도 못할 일이라 여겨서 일부만 지키거나, 어설픈 각오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